

곤고지 절

가와카미무라의 고노타니 지역에 있는 소박한 사원으로, 15 세기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기리는 곳입니다. 현재의 곤고지 본당은 1716 년에 지어졌으며, 인접한 신사는 남조 혈통의 마지막 황족인 지텐노(1440~1457)와 그의 남동생 타다요시오(1457 년 사망)라는 어린 천황에게 바쳐진 곳입니다. 두 형제가 자객에게 암살된 후 가와카미 주민들이 이들을 추모하고자 이 사원을 건립했습니다.

본당 옆에는 지텐노의 의복과 검, 갑옷이 든 작은 수장고가 있습니다. 남조의 본거지가 요시노였기 때문에 친왕들이 사망한 후 마을 주민들이 이 유품들을 가와카미로 가져왔습니다. 매년 2 월 5 일에 열리는 오초하이 의식에서는 수장고의 문이 개방되며 주인들이 참여하여 경의를 표합니다.

이곳의 첫 사원은 슈겐도라는 산악 수행 신앙을 창시했다고 전해지는 엔노 교자(634 년~701 년경)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. 매년 8 월 23 일에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이 사원의 본존은 아이들의 수호자이자 지옥에 갇힌 영혼을 구한다는 지장보살상입니다. 이 상수리나무 조각상은 엔노 교자가 조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

본당 왼쪽으로는 수령 800 년이 넘었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. 기둥 가운데가 비었는데도 나무는 계속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